

한국의 '엘 시스템아'... 열정의 하모니 기대하세요

10월 창단연주회 갖는 영광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습장 가보니

“기교가 아닌 열정과 노력으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영광 청소년 오케스트라 초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임두식 상임지휘자는 “전북 YMCA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재직 당시 배우고 싶지만 악기가 없던 청소년들을 위해 자비로 악기를 구입해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영광 청소년들은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뛰어나 앞으로 만들어진 하모니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디션 거쳐 26명 단원 선발=영광군은 지난 5월 관내에 거주하는 만 10(초등 4년)~18세(고등 3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입단 오디션을 거쳐 26명의 단원을 확정하고, 최근 “영광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단원들은 재능 기부자를 통해 매주 토요일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습을 받게 되며, 오는 10월 창단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과 관련, 지난해 전국 초·중·고 400개교 학생 오케스트라를 지원했다. 전남지역에는 초 등 16, 중 등 10, 고 등 5개교 등 총 31개교에서 학생 오케스트라가 운영 중이다.

영광지역의 경우 군내 30개교 6000여명의 청소년 가운데 11개교 400여 명이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학원레슨 등으로 악기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오케스트라로 지정된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이 연주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엘 시스템아’(El Sistema)와 같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됐다. ‘엘 시스템아’는 1975년 베네수엘라 빈민촌에서 시작된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30만명의 청소년들이 회원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이승연(영광여중 3년·플루트) 학생은 “같이 악기를 배우는 친구들이 광주나 목포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정은(바이올린) 학생 역시 “혼자서만 바이올린을 해서 다른 친구들의 소리와 박자를 맞추는 게 아직은 어렵다”며 “악장까지 맡게 돼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동생들을 잘 이끌어 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연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운영=오케스트라와 같은 전문 예술분야의 경

오디션 거쳐 단원 26명 선발

군, 재능기부자 모집 창단

매주 모여 교습·조율 구슬땀

악기와 활동장소,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없을 경우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케스트라 1곳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운영비를 포함해 8000만~1억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효용성은 알지 못하더라도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시도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영광군은 지역내 재능기부자 모집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문화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연 3000만원 내외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영광 예술의 전당’이 다음달 완공됨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어 활발한 연주활동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자리를 잡고, 한국형 ‘엘 시스템아’로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계기로 관내 청소년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끌어올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두식 상임지휘자는 “처음엔 단원들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적응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다소 애를 먹었지만 열정과 책임감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청소년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주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영광 청소년 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임두식) 단원들이 오는 10월 창단 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다.

기념관 건립·장학회 설립...신안 출신 장병준 선생 선양사업 본격화

신안출신 독립운동가 포양 장병준(1893~1972·사진) 선생 선양사업이 본격화됐다.

“장병준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념관 건립과 장학회 설립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학술회의 개최를 비롯해 전기 발간, 동상 건립, 다큐멘터리 제작 등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양 장병준 선생의 출생지인 신안군도 50억원을 들여 보존 상태가 양호한 장산도 생가 부근에 기념관(82㎡)과 추모관(33㎡), 관리실을 내건까지 건립하고, 묘역 공원과 사업도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 장 선생 후손들은 신안군과 생가(200㎡), 터(2508㎡), 유품(100점) 등을 기증하는 협약을 한 바 있다. 독립운동가 장병준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됐다.

특히 포양 장병준 선생 후손들은 3대에 걸쳐 정·관·학계에서 명성을 떨쳤다. 1세대인 장병준·장충재·장홍염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2세대인 장정식·장중식·장영식·장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장산도는 일제강점기에 무안군에 속했으나 1969년 1월 신안군의 분군(分郡)에 따라 현재는 신안군에 속해 있다.

신안=이성진기자 ssl@신안신문.com, 무안=김민준기자 jun@무안신문.com

식씨는 한국전쟁 전과 정치인·관료·의사로 이름을 알렸다.

3세대인 장하진·장하성·장하경·장하준·장하석·장하중·장하원씨는 학자로

세상의 주인공은 나... 당당한 학생들

함평고 1·2학년 19명 자기주장 경연대회

함평고등학교(교장 장용준)가 최근 역산관(대강당)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장 경연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1, 2학년 학생 19명이 자율주제로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해 감재를 받았다.

학년별로 나눠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1학년 대상은 ‘기숙사생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허준원 군이 수상했고, 2학년 대상은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재희 양이 차지했다.

심사위원을 맡은 이미리 교사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 자기의 주장을 열성적으로 펼쳤다”며 “이번 경연대회가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인성 함양에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2학년 대상을 차지한 정재희 양은 “상호 충돌하는 생각들의 합의를 도출하



는 능력도 키우고,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전남도 갯벌연구 주꾸미 치어 20만마리 방류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국제 갯벌연구소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꾸미 자원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 국제 갯벌연구소는 대량 종묘 생산 시험연구를 통해 자체 생산한 어린 주꾸미 20만 마리를 25일부터 무안 탄도·청계 등 ‘맘사르 습지’로 지정된 서해안 갯벌 연안에 방류했다.

국제 갯벌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종묘생산 시험연구를 시도해 자원을 조성하고 있다.

전남지역 주꾸미 생산량은 지난 2009년 548t이 생산된 것이 지난해 234t으

로 무려 56%나 줄었다. 이에 따른 유류 단가는 2008년 1kg당 1만1650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2만9440원으로 2.5배나 상승했다.

이번에 방류된 주꾸미는 지난 5월 성숙한 어미를 확보해 국제 갯벌연구소 시험 연구동에서 심철홍 연구사가 50일간 바지락 등 먹이 공급을 거쳐 산란 및 부화해 생산한 것이다.

어린 주꾸미는 공식(상호 공격)으로 인한 폐사율이 높아 부화 후 3일 이내 해상에 방류를 해야 하는 까다로운 품종이다. 유현석기자 chadol@

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 주민 쉼터 새단장

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소장 김경준)가 주민들과의 소통·공감하는 치안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는 최근 파출소내에 ‘다정다감 쉼터’(사진)를 새로 단장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편하게 다가오는 쾌적한 청사환경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경준 소장은 “쉼터에서 주민좌담회를 열고 들머리 해수욕장 등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공감 차이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일조 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나주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 D-9 이주단지 88평 매매가.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생촌동 4대주 주택 182㎡(55) 건물 412㎡(124). 1.2층 4대주 주택은 3.4층은 1억4천에 임대 매도 3억6천.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첨단 중심상권 1층 구분매도 85㎡ 매3.5억(보5천, 월150만포함). 세곡유동 1중주거지역 1.990㎡ 매매 6억 6천.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점성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원룸 금매. 대지 280㎡ (80.5평) 건평 190평. 신축 2012년 준공 방금 18개. 월임대수입 540만.